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05 + 06
MAY + JUN
2020 vol.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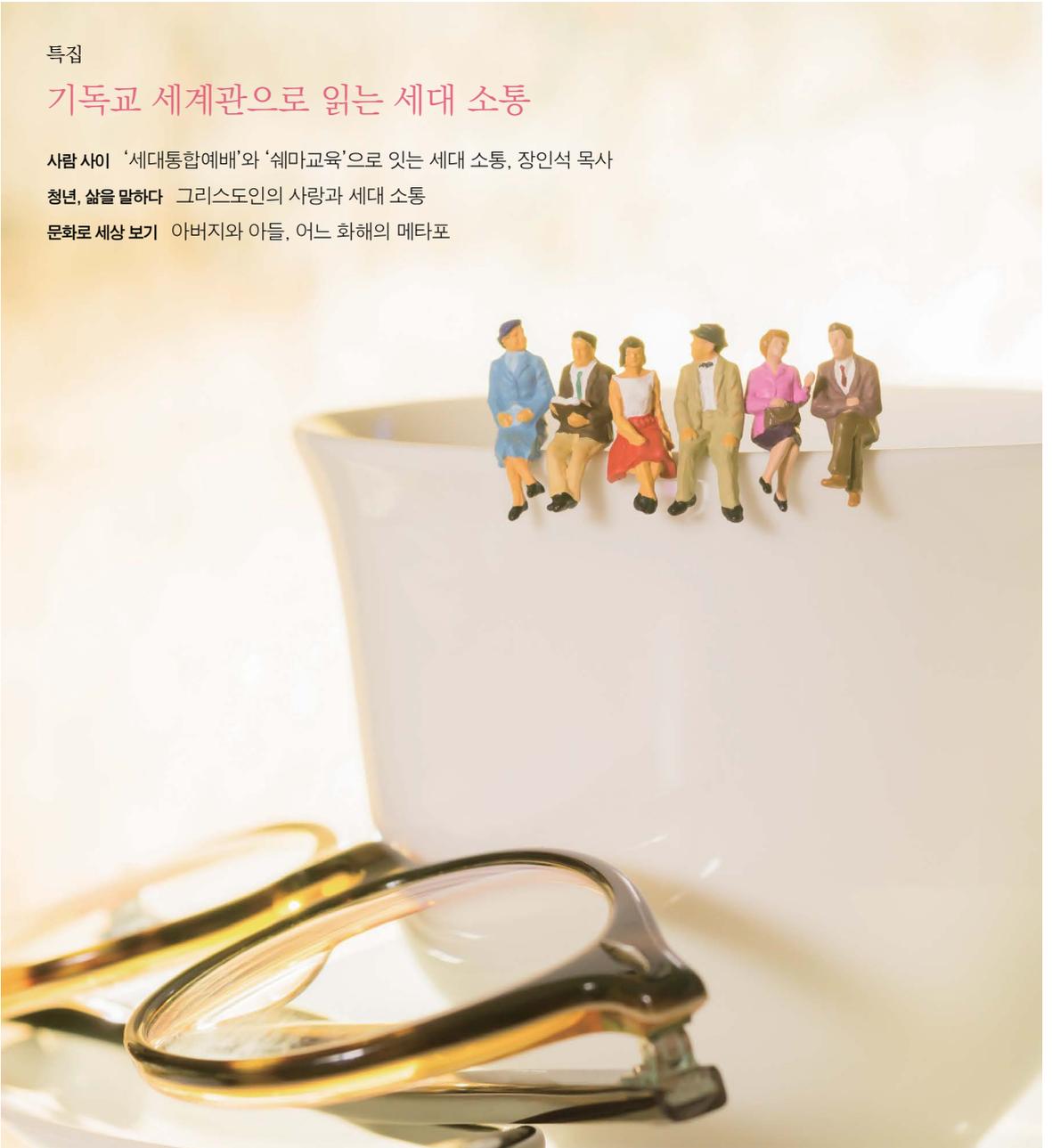
특집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세대 소통

사람 사이 '세대통합예배'와 '쉐마교육'으로 잇는 세대 소통, 장인석 목사

청년, 삶을 말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세대 소통

문화로 세상 보기 아버지와 아들, 어느 화해의 메타포



ISSN 2671-8731

Contents

MAY + JUNE · 2020

시선

세계관은 세대 소통의 접촉점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문화 역류 시대, 세대 간의 소통이 절실합니다 | 신국원 04

특집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세대소통

진리를 통해 회복되는 세대 소통 | 화종부 06

청년세대의 '질문'과 한국 교회 | 박진규 08

소통을 위한 거울과 철이 되는 대화 | 전명희 10

사랑한다면 경청하세요 | 유경상 12

사람 사이

섬김의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나의 만남 | 최태연 18



2020. 5+6월호 | 제6호(통권 221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어른을 달라 김병재	20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소통하기 노희영	22

청년, 삶을 말하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세대 소통 조지혜	24
------------------------	----

청년, 일터 이야기

긴 호흡을 하며 천천히 꾸준하게 걸어가기 안정민	26
------------------------------	----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아버지와 아들, 어느 화해의 메타포 추태화	28
---------------------------	----

미술을 보다

세대간 대화의 예술 플랫폼 서성록	30
----------------------	----

책을 보다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 김지원	32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김성한	34
십대를 위한 어느 할아버지의 선물 장슬기	36
<창조를 통한 사고 : 문화 비평의 도구인 창세기 1장과 2장> 황영철	38

운전한 지성

나는 왜 초등학생의 과학적 탐구에서 공감하지 못했는가?- 인식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문현	40
--	----

교회 路

다음 세대를 위한 '하눈세' 캠프 소개 박신애	42
수료 소감문 정은정	43

소식

사무국 / 관련기관	44
------------	----



세계관은 세대 소통의 접착점

손봉호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요즘 아이들은 사치를 좋아하고 버릇이 나쁘며,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운동 대신 재잘거리를 좋아한다.” 주전 5세기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당시의 철부지들을 두고 토로한 불만이다. 모든 시대의 끈대들을 대변한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와 살날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노인, 경험을 많이 한 어른과 조금밖에 하지 못한 풋내기,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살았던 백발과 5G 휴대전화기로 외국 축구경기를 보는 철부지가 생각이 같을 수 없다. 세대 간 격차는 어느 시대에도 있었고 소통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소크라테스로부터 20세기 초까지는 ‘객관적’, ‘정상적’, ‘상식적’, ‘대세’ 같은 것들이 있었고 대부분 존중되었다. 젊은이들은 아직 어려서 사실도, 진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기성세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어린 것들은 무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유유서(長幼有序)는 그저 하나의 예의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인 질서였

다. 어른이 큰 소리를 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현대인의 삶은 주로 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구세대는 아무리 험뎌거려도 따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특히 요즘의 기술은 육체의 편리보다는 의식의 확장을 돕기 때문에 사고방식,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를 더욱 확대한다.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로 묶고 거기다가 번역기술까지 개발되어 이제는 문화나 지역 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서로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IT 기술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젊은 세대에게 더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한국의 BTS가 국제적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노래를 한국의 어른들보다 미국이나 유럽의 청소년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다. 이제는 같은 지역, 같은 문화권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의 차이가 다른 문명이나 지역 간의 차이보다 더 커지고 있고, 모든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더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없다.

물이 H2O고 0도에서 언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어린이가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과 사회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이나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과 인식의 일치가 진리라는 '부합설'(符合說, Correspondence Theory)은 힘을 잃고, 인식간의 일관성이 진리라는 '정합설'(整合說, Consistence Theory), 심지어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진리라는 '합의설'(合意說, Consensus Theory)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다. 토마스 쿤(Thomas Kuhn)은 심지어 자연과학 이론조차도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이 시대의 정신을 대변한다.

거기다가 점점 확대되는 SNS에는 워낙 많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므로 어떤 어불성설 주장도 동조를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정당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 역사상 이렇게 많은 정보와 다양한 의견이 넘쳐흐른 때가 없었지만, 동시에 오직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관점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러먹었다는 독단이 이렇게 심각한 적도 없었다. 수준 낮은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매우 시끄러운 시대가 되었다.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관(world-view)이란 객관적 세계(world)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관점'(view)에 초점이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란 세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은 현대 사회의 다원주의적 조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도이어베르트(H. Dooyeweerd)가 고대, 중세, 현대의 '종교적 기본 동인'(religious ground motive)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은 각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합의해서 형성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에 근거해 있다. 객관적인 권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성세대에 속했던 청년세대와 소년세대에 속했던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관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간에 정치적 견해로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념을 신앙보다 우위에 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노인이든 젊은이든 성경과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기본적인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각 세대가 성경의 가르침과 그 성경을 해석해서 형성한 정통교리와 자신들의 관점 간에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열고 노력하면 상대주의를 넘어선 기독교 세계관에 동의할 수 있고, 그것은 세대 간 소통의 접착점(point of contact)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그리스도인의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 기아대책 이사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문화 역류 시대, 세대 간의 소통이 절실합니다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의 주제는 가정과 세대 간 소통입니다.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사기의 비극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등장할 위기 속에 세대 간의 단절과 대립은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오늘의 문화는 기술적 우위를 가진 젊은이에게서 기성세대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문화혼종 현상과 포스트모던적 파편화도 간과할 수 없는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글 <시선>은 기독교 세계관의 보편적 타당성이 시대와 문화적 다양성을 초월하는 창조질서와 성경 진리에 입각하고 있음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세대 소통을 위한 훌륭한 기초이기도하다는 것입니다. 남서울교회 화중부 목사님은 세대간 통합 예배를 통해 교회가 공유하고 전승해야 할 핵심 가치와 정신을 살려낸 경험을 나누어 주십니다. 박진규 교수님은 일방적 가르침을 거부한 한 청년 수련회의 일화에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지를 고민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진리의 절대성에 의존해 질문과 토론을 막고 설교와 호통을 치는 자세에 빠진 것이 아닌지를 말입니다. 세대간의 소통에서 진리의 절대성과 해석과 실천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함도 일깨워 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명희 교수님의 제안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 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유경상 교수님은 특히 자녀들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분 모두 일방적인 잔소리가 아닌 경청에서 출발하는 대화로 진정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판단 대신 현재를 인정해주고 나아지길 소망하며 기다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은 자녀들이 소통하는 이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산본 해민교회의 장인석 목사님은 18년간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느리게(?) 성장해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청년과 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진정한 공동체로 일구는 목회가 가능하고 필요함을 일깨워준 모범입니다. 제가 실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도 예배시간 내내 정숙하게 경청하며 노트까지 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 동역회의 오랜 구성원들의 특징은 대학생 시절부터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대한 관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 이사로 선출된 최대연 교수님도 학생 시절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으면서 지난 40년 이상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을 통해 백석대학교와 교회에

서 섬김의 경험을 나누어 주십니다.

김병재 형제는 고등학생들의 멘토를 거쳐 청년사역으로 이어간 경험을 나눕니다. 배울 선배가 없다는 젊은이의 호소를 어떻게 들어주어야 할지를 알려주네요. 노희영 자매는 청년들 속에도 선배와 후배 간에 상당한 갈등과 소통의 부재가 있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찾아내어 그것을 세대 간 소통의 지혜로 삼는 길을 제시합니다. 즉 '세대주의적 사고'를 벗어나는 것인데 이는 성경적 진리인 사랑의 실천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보살핌을 많이 받은 조지혜 자매도 자신의 대학생들과 엄마로서의 세대간 소통의 경험에 기초해 나이, 권위, 판단의 옷을 벗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즉 사랑이 성령께서 주시는 소통의 통로임을 강조합니다. 선교단체 간사로 일하면서 일인 출판사를 연 안정민 자매의 당찬 도전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응원하고 싶은 일터입니다.

추태화 교수님은 판타지 영화 <빅 피쉬>가 그리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와의 아들의 애절한 소통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서성록 교수님은 렘브란트와 뒤러 같은 기독교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에 비친 세대 간의 대화를 들려줍니다. 특히 <돌아온 탕자>는 잘 알려진 성경의 주제일 뿐 아니라 깨어진 가족의 회복과 소통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교수님 모두 이런 진리의 소통을 잃어버린 오늘의 문화적 분위기를 안타까워하십니다.

김지원 교수님은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가 '자녀 양육을 통한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죽을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깨닫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 김성한 형제는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이유를 말해줍니다. 장슬기 선생님의 <답이 없는 너에게> 서평은 십대의 눈높이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노(老)철학자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웨슬리 선교사님과 황영철 목사님의 <Thinking through Creation> 소개는 성경이 문화의 난제들과 어떻게 진지하게 씨름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한문헌 선생님은 왜 초등학교의 과학적 탐구를 공감하기 어려운지를 연구한 논문을 소개합니다.

'교회 路'에서 높은뜻광성교회와 높은뜻우신교회의 박신애 목사님과 정은정 자매님이 소개하는 기독교 세계관 학교 프로그램인 '하늘세' 캠프는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정체성, 친구,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계관 학교의 장점과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매번 적는 말이지만 편집진과 사무국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앙과 삶>을 통해서 동역을 시작한 여러 교회와 개인 후원자가 되신 회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속에 조금씩 더 알찬 동역회 기관지가 되어감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유례없는 사태로 예배마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게 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FAITH & LIFE



✍ 글쓴이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 네덜란드 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과 <신앙과 삶> 편집장, 삼일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진리를 통해 회복되는 세대 소통

화중부 (남서울교회 담임목사)

유엔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 도시는 외적인 화려함만큼이나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그 내면에 드리워져 있다. 물질을 향한 사람의 탐욕과 각종 범죄, 끔찍한 사건, 사고들, 음주와 도박, 매춘 등 악한 문화가 창궐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지극히 외롭고 불안하며 두려운 일상을 살아간다. 아름다움과 화려함 이면에 허무와 절망이 있으며, 향락과 쾌락 뒤에 숨겨진 불안과 초조가 있다. 거대한 부와 성공, 성장의 신화 아래 감추어진 가난과 불평등, 빈부의 격차 등으로 인한 존재의 깊은 좌절이 있다. 도시는 무명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촉진시키는 반면, 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고독함과 채워지지 않는 내적 갈망으로 고통하고 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찾아 헤매고 있으므로, 상처 받고 깨어진 사람들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위해 교회의 각성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할 것이다. 도시화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각종 관계의 붕괴에서 오는 아픔이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달음칠치면서 무한 경쟁이 당연시 되고 급격한 개인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가정은 하숙집처럼 변해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며, 이혼은 급격히 증가하고, 세대 간의 단절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를 배우고 문제

를 다루어내는 지혜의 보고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와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길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큰 가정’이라 할 수 있는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작은 가정들을 바르게 세움으로 시대의 필요를 공급하고, 영혼들의 아픔을 감당해 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계층, 그리고 각기 다른 세대들이 모여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집처럼, 성도 서로를 자기 가족과 피붙이처럼 여기며 서로 책임 있게 사랑하기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는 과거를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면서 쉽게 비판하고 꼬리를 잘라 냄으로써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어디서나 보게 된다. 과거가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이 내일도 없는 것인데, 너무 현재만 기준으로 삼으려 해서 안 된다. 교회의 관심이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하며, 지금과 현재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함께 품는 포용성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과거의 허물의 일부를 우리의 책임으로 받아 함께 뉘우치고 감당해 낼 때에야 비로소 바른 미래에 대한 준비도 가능할 것이며, 다음 세대를 존중하고 희생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주일에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예배를 통한 세대 간의 교제와 사귄을 갖게 하

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청년과 대학생들이 부모 세대와는 다른 예배 시간에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청년과 대학생들은 예배드리는 시간부터 부모 세대와 분리되어 있어서 세대 간의 사귄과 만남 자체가 원천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모 세대와 함께 예배하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교회가 마땅히 공유하며 계승해야 하는 핵심 가치와 정신을 나누지 못하게 되고 세대 간의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서울교회에 부임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당시 5부로 드리고 있던 주일 대예배를 4부로 바꾼 일이었다. 주일 오후에 드리고 있던 5부 예배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비록 세대가 다르고 좋아하는 음악이 다르며 사물에 대한 가치와 판단도 많이 다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더불어 자라고 함께 자라야 세대 계승과 성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4부까지의 각 예배로 흩어져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했다. “과연 청년들이 부모 세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좋아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약간의 부담과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 모든 지체와 세대들을 아우르는 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믿고, 더불어 자라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며 서로 책임 있게 사랑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감히 시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리의 염려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인 것처럼 자녀와 부모의 세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요즘 세대들이 전통과 제도에 대한 거부 반응

을 보이며 자기중심적인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영적인 것들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미 풍족한 시대를 경험하며 자란 우리 자녀 세대들은 더 이상 사회적인 성공이나 화려한 성취가 있는 삶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관계, 사랑, 타인을 돕는 삶 등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그런 삶을 향해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그리워하며 산다. 놀랍게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이 목말라하는 것은 사랑에 기초한 깊고 친밀한 관계이며, 서로 사랑하고 소속되어 희생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교회야말로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도구가 아닌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고귀한 희생과 헌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돌보는 섬김, 피붙이들보다 더 소중한 만남과 교제 등이 교회 안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가족 공동체적인 특성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희생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시대의 필요와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께서 이런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화중부

남서울교회 담임목사(2012~현재)이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총신대 신학대학원, 영국 에딘버러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공부했다. 내수동교회 대학부 목사, 영국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목사(2001~2011)를 역임했다.

청년세대의 ‘질문’과 한국 교회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작년 가을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드라마가 방송되었다.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10대, 20대 젊은 시청자 사이에선 큰 인기와 화제였다. 사실 방송가에서는 이 드라마가 왜 그런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웹툰 원작의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이 만화 속 세상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판타지 강한 스토리를 가졌고, 개연성을 중시하는 기존 드라마 문법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낯선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방송 전문가에게도 젊은 세대만의 이 독특한 반응을 설명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건 방송가만의 숙제는 아닌 듯하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 ‘90년대생’ 등 현란한 말을 동원해 그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내놓는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즐비하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목매는 정치권에서도 20대 유권자는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마음을 사는 건 더 어려운 집단으로 언제나 거론된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교회는 어떤가?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한다고 자부하기

는 어려울 거다. 지역 교회에 청년의 자리가 비어간다는 하소연이 나온 지는 이미 오래고, 대학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 선교단체들은 과거 부흥 이야기가 이젠 전설처럼 들린다. 물론 젊은이들이 교회에 전혀 없진 않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려면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청년 사역에 성공한 교회에 가야만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호흡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회는 점점 더 찾기 어렵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온 나라의 비난을 받은 신천지는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을 주었다. 확산 초기 전체 확진자 중 20대 비율을 왜곡시킬 만큼, 신천지 신자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청년을 찾기 어려운 정통 개신교’와 ‘20대가 넘쳐나는 이단’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적잖이 당황스럽다.

한국 교회는 젊은 세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을 보면 ‘단절’이라는 표현이 과하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청년세대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물론 쉽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는 있겠다. 내가 '미디어와 종교'를 공부한다는 걸 알고 미디어를 전공하는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찾아와 상담을 청하곤 한다. 전공의 성격 때문인지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고, 사회적 이슈에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그들의 고민거리를 듣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다. 교회는 '질문하지 못하는 곳'이란단다. 학교나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질문할 수 없는, 아니 질문해서는 안 되는 곳이란단다. 목회자와 교회 어른들은 질문을 막는, 아니 질문하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란단다.

청년 사역으로 제법 이름난 한 대형교회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일체의 토론을 거부하고 자신의 신념을 일방적으로 토해내는 강사 앞에서 청년들이 하나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고, 거기에는 리더급의 청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더는 견디지 못해 떠나가는 이 땅의 젊은 세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세대(generation)의 구분은 규범과 상식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각 세대는 나이로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집단경험에서 오는 고유의 감각, 정서, 나아가 상식과 규범의 공유를 통해 형성된다. 세대 차이란 결국 그 간극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차이에 대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 차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세대 간 소통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질문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세대 차이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들은 교회와 교회 어른들에게 '절대성과 상대성의 분별'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하려는 것이다. 절대적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진리'와, 상대적 포용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식', '태도', '규칙', '방법' 등을 혼동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진리의 절대

성을 부인하지 않되, 그 진리를 이 땅의 현실에서 해석하고 실천하는 방법론의 비절대성을 인정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호소다.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염구는 정치, 사회, 이념이라는 상대성의 영역을 복음이라는 절대성의 영역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또, 시시각각 벌어지는 쟁점을 놓고 벌여야 할 질문과 토론을 설교와 호통으로 치환하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이다. 진리의 절대성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절대 쉽지 않은 숙제다. 그러나 청년세대와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은 이를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나아가 복음주의 신앙의 본래 정신을 회복하고 세상,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상황에 내몰린 한국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과제이다.

지금 청년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어떻게 보일까? 최근 몇 년 동안 공동체를 힘겹게 했던 <월드뷰> 논란으로 많은 청년이 실망하고 떠난 건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쩌면 그 사태의 본질 역시 질문하지 못하게 했던, 상대성과 절대성의 경계를 흔들었던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비로소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사역이 될 수 있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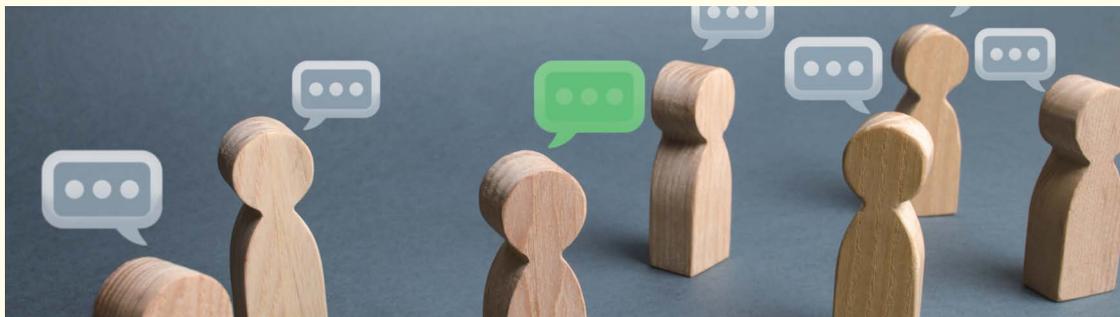


 글쓴이 박진규

서울여자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이다.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콜로라도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소통을 위한 거울과 철이 되는 대화

전명희 (한동대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일상이 지속되며 우리 가족은 얼마 전 폰을 바꾸게 된 딸아이와 함께 재미 삼아 인공지능(AI)과의 대화 놀이를 하게 되었다. “시리! 빅스비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자, 시리는 “그것은 마치 사과와 사과가 아닌 것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미국인들이 할법한 유머를 감정 하나 섞지 않고 또박또박한 기계음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폭소를 자아냈다. 뒤이어 아들은 자기의 폰에 대고 “빅스비! 시리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자 빅스비는 “저도 인공지능대 인공지능의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군요”라고 사뭇 다른 대답을 하였다. 이 인간 아닌 것들의 대답에 재미가 붙어 “오케이 구글! 시리와 빅스비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묻자 “시리는 같은 고향 친구라 좋고, 빅스비는 같은 업계 친구라 좋아요”라고 하였다. 현재의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을 구현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반복 학습 데이터에 의해 딥러닝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조차 그 의사소통 양식에 있어서 태생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잠시나마 아이가 제법 어른같이 말하는 듯한 AI 반응이 재밌어 응대를 해주며 든 생각은 우리가 누군가의 대상(object)이 되어줌으로 그 누군가가 점차 우리를 닮아간다는 점이었다. AI가 인간을 닮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어있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을 필두로 대상을 통해 배우고 양육되며 그 대상이 내면화되어 응집력있는 자기(Self)를 이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바로 가장 중요한 성장의 그릇인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 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진 요즘 한산한 거리와는 달리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은 가족 간의 너무 가까워진 거리 탓에 꿈쩍없이 삼시세끼를 해먹으며 부대껴야 했을 것이다. 오랜만에 함께 있어 좋은 시간을 잘 보낸 가족들도 있었지만 서로 맘에 들지 않아도 밖에 나갈 수 없으니 방문을 닫아버리는 불편한 동거를 하기도 하고, 가족 간 대화가 불편하여 제각각 주로 TV와 폰, 그리고 컴퓨터와 보내며 단절을 또렷이 느꼈을 수도 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

여 애기를 시작해도 서로 차이점만 확인하게 될 뿐 더 이상의 진전 없이 좌절감만 경험했을 수도 있다. 이 글을 읽게 될 때에는 조금이나마 사태가 진정되고 희망이 보이길 기대해보지만 적어도 지금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가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연이어 19절에는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는 말씀이 있다. 이 두 구절은 인간의 성장과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은 인간은 서로의 생각의 다름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불편감을 느끼더라도, 비평적 대화를 통해 치밀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습득하게 됨을 의미한다. 사춘기 이후의 자녀들과는 이러한 비평적 대화를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19절 말씀은 더 본질적 수준에서 인간은 자기를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이의 마음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마음을 알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양육자가 해주는 일로서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반영’(reflection)해주며 경청해주는 것이 인간의 발달과 성장에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결국,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받아주는 한 쪽 측면과 나와 다른 점들로 인해 갈등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독특성을 차별화시키는 과정이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나’라는 독특한 존재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의사소통 이론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가 없거나

갈등하던 그룹이 소통을 해보자고 대화를 시작하면 일정 기간은 차이점을 발견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지속해나가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U 선형의 그래프로 바뀌면서 타협점과 해결점으로 향하게 된다고 한다. 어쩌면 거기에 이르기까지 대화하지 않았기에 대화의 힘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소통을 위해서는 때로는 잘 받아주는 거울 같은 대화와 때로는 다름을 확인하며 갈등을 드러내는 두 종류의 대화가 모두 유익한 것이다. 그 선제조건은 안전한 상태에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관계가 바로 끊어지지 않는 주님과 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성화되는 과정을 견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관계의 궁극적 모델이다. 그러한 관계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이 가족이며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두 축의 관계와 소통의 경험야말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더욱 강건하고 균형있게 만들 수 있다. 즉, 서로 자기를 볼 수 있게 거울이 되어주기도 하고 더욱 건강한 자극 속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여 빛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가족 간에 그러한 대화가 가능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전명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Ph.D.)와 상담코칭(박사수료)을 공부하였다. 주전공은 가족복지와 상담이며 통일시대의 남북한 사람들의 통합과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및 실천활동을 하고 있다. 포항침례교회 집사이다.

사랑한다면 경청하세요

유경상 (CTC 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 대표)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부모로서 점점 힘든 부분이 바로 소통 문제가 아닐까? 중2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도 잘 듣고 대화도 자주 했는데, 중학교를 올라가자마자 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아이와 대화만 하면 결국에는 싸우게 돼요.”라고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어떤 엄마는 자기 자녀와 매일 2시간 이상 대화를 한다고 해서 큰 도전을 받았다. 그 후 그 엄마의 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 엄마가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혈, 엄마만 계속 이야기해요.”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웃고 넘길 수 없는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고, 자녀들이 더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의 문을 열지만, 그럴수록 서로 마음의 문이 닫혀간다. 아이들이 점점 커서 사춘기가 되고 청년들이 되어 갈수록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장벽이 높아지고,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낀다.

왜 부모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들까? 부모가

자녀와의 소통이 힘든 이유를 두 가지로 간략히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부모와 자녀의 생각 차이 때문이다. 아이들이 클수록 점점 부모와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기도 한다. 부모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심지어 부모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발견한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올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본의 아니게 대화가 아닌 잔소리가 된다.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부모가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강의도 듣고 책도 읽지만, 자녀와의 소통은 여전히 힘들다. 한 코칭 강사의 말이 기억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대화이다.” 어린아이가 책이 아닌 부모의 말을 지속해서 들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익히듯이, 대화는 책과 강의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화 모델과 수많은 실습으로 익숙해지는 것이

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는 지금까지 모범이 되는 대화를 경험하거나 대화 훈련을 해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와의 소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먼저 자녀와의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 부모 자신의 대화 방식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화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 부모의 대화 목적이 자녀들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 대화는 부모의 '일방적인 소통'(잔소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의 대화 목적이 이해하는 것이라면, 부모는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야 한다. 자녀와의 대화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이해해주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공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이해받는 느낌이 들게 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고,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우리를 판단하기보다 누구보다도 이해해주는 하나님처럼, 부모도 자녀들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내버려 두거나 무조건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려 주는 것이다. 사람은 판단 받거나 정죄 받을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받을 때 비로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자녀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해결 방안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이다. 대화를 통해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 단계는 다름 아닌 경청하기이다. 하지만 대부분 부모는 지금까지 말하기와 화내기

를 먼저 하고 듣기는 그 후에 하거나 심지어 듣기는 아예 생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지금까지 익숙해진 것을 버리는 것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 대신에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더욱 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자녀들과 대화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경청할 수 있도록 두 개의 귀, 두 개의 눈, 두 개의 콧구멍, 온몸에 퍼져 있는 수천수만의 신경세포, 이 모든 감각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뛰어난 두뇌를 이미 주셨다. 또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을 부모에게 이미 부어 주셨다. 더 나아가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영향을 받기보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와의 소통을 포기할 수 없다.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다른 누군가와 소통하게 될 것이고, 소통할수록 그 누군가와 친밀해질 것이고, 그 '소통의 대상'(세계관)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제 부모는 경청할 때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유경상

CTC 대표.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경북대 철학과(B.A), 밴쿠버세계관대학원(VIEW), 백석대 박사과정(Ph.D)에서 공부했다. 2007년 '기독교세계관훈련센터'(CTC)를 설립했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크리스천 씽킹>,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등이 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기독교 세계관과 나의 만남

최태연 (백석대 신학과 교수)



돌이켜보니 나도 모르게 기독교 세계관과 만난 것은 1978년쯤 대학생 때였던 것 같다. 사범대 교육학과 학생으로서양철학을 부전공했던 나는 선교단체에서 성경공부를 통해 다시 뜨거워진 신앙과 철학을 '통합'하고 싶었다. 그 무렵 손봉호 교수님이 총신대에서 기독교철학을 강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손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몇 번 청강을 했다. 그해 출판된 <현대 정신과 기독교적 지성>이라는 책도 탐독했다.

그 시절은 유신독재의 막바지였다. 세상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내가 발견한 해결책은 '기독교 철학'이었다. 대학원에서 아예 서양철학으로 전공을 바꿔 송실대 김영한 교수님의 지도 아래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Emil Brunner, 1889-1966)의 기독교철학에 대한 석사논문을 썼다. 무척 길었던 독일에서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1996년에 귀국해서 다시 손봉호 교수님을 만났다. 그분은 철학교수만이 아니라

시민운동가가 되어 있었다. 이미 유럽에서 알았던 강영안 교수님과 총신대의 신국원 교수님과도 교제하면서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에 참여했다. 그 때부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읽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기독교 세계관을 흡수했다. 알버트 월터스(Albert Wolters), 제임스 사이어(James Sire), 브라이언 월쉬(Brian Walsh)와 리처드 미들톤(Richard Middleton), 폴 마샬(Paul Marshall), 아더 홈즈(Arthur Holmes), 프랜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 등의 책을 읽었다. 그들 배후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라는 커다란 샘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카이퍼를 탐구하게 되었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는 나의 철학 연구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박사학위를 했던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해석학을 나의 철학의 모델로 삼

기 보다는 카이퍼의 신칼빈주의 신학에 기초한 문화철학, 과학철학, 예술철학을 세우고 싶었다. 이런 마음으로 2000년부터 백석대에서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연구했다.

또 하나의 도전은 기독교대학에 대한 연구였다. 웨슬리 웬트워스(Wesley Wentworth) 선교사님이 소개해 준 조지 마스덴(George Marsden)의 <미국 대학의 영혼>을 통해 기독교대학이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설립되었고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백석대에서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보직을 맡으면서 북미의 기독교대학을 방문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럽대륙의 대학들은 역사가 훨씬 길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되어 기독교적 성격을 잃은 반면에, 북미는 사립대학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된 기독교대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히 베일러 대학(Baylor University), 페퍼다인 대학(Pepperdine University), 칼빈 대학(Calvin college), 위튼 대학(Wheaton College), 도르트 대학(Dordt College), 댈러스 침례대학(Dallas Baptist University)을 방문하면서 기독교대학의 구체적 모습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학문 연구와 교수 프로그램 없이는 그 정체성을 이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대학 안에서는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밖에서는 기독교학문연구회와 연구소, 기독교교육동역회와 통합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실행위원으로 40대와 50대를 보냈다. 특히 중앙대의 김승욱 교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기학연과 동역회를 섬겼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과 만난 지 25년이 된다. 여전히 나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학문, 기독교대학 운동이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에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운동을 북한에 가서 하고 싶다. 동시에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며 사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기독교 세계관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고 교회 공동체와 직업 공동체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성적이고 실천적 측면이 강한 기독교 세계관을 내면적 경건의 영성과 연결해서 연구할 필요도 느낀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최태연

백석대 신학과 기독교철학 교수이다. 성균관대 교육학과(B.A), 숭실대 대학원 철학과(M.A), 백석대 신학대학원(M.Div), 베를린자유대학교(Ph.D)에서 공부했다. 한국기독교철학회 회장,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서로사랑교회 동사 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해석학의 변증법 Dialektik der Hermeneutik>, <개혁주의와 과학철학>, <종교개혁과 미술>(공저) 등이 있다.

어른을 달라

김병재 (아세아연합신학대 대학원 박사과정)

나는 '생물학적'으로만 보자면 'X세대'를 바라보고 자란 '밀레니얼'이다. X세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나는 그들을 동경했다. 사회적 분위기를 지배한 (이 단어를 정말 싫어하지만) '꼰대'들에게 뭔가 반항적이었던 그들. 특별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곡들은 당시 감수성이 뛰어났던 중학생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기독교학교 교사로서 일할 때도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그런 가르침은 됐어"라는 <교실 이데아>의 가사가 나의 교육철학에 큰 흔적으로 남은 것을 보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만하다. 88만원, N포, 90년생, 밀레니얼, G세대, 페미니즘 등, 최근 몇 년 동안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 이 등장했다. 당사자인 청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청년들은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 용어들은 사회구조, 자본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반영한 불평등의 아이콘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담론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청년들을 어떻게 지칭하든 간에 청년은 언제나 구세대와 구분됐다. 당연한 말이지만, 각 시대는 특유의 구조와 감성을 공유한다. 특히 감수성이 뛰어난 특정 나이대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를 공유하고, 그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해 앞선 세대보다 민감하다. 세대론과 관련하여 회자되었던 공정 경쟁, 불공정 경쟁 역시 현재의 사회적 구조와 이에 민감한 세대의 문제의식을 잘 보

여준다. 이런 세대론이 부상하면서 진부하지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소통'의 문제 또한 여전히 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보여지기까지 하니, 과연 "가해자와 피해자는 소통할 수 있는가?"를 묻게 된다.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비교적 큰 교회에 다녔던 학생 시절에는 교회의 구조상 학생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교회 밖이라고 달랐을까? 학창 시절 인격적 소통을 나눴던 학교 교사가 있었는가에 대해 묻는다면 그리 긍정하며 대답하지 못하겠다. 그 때는 그렇게,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청년이 되어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며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장년들과 함께 하는 예배와 식사, 많은 대화와 만남,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은 그들이 좋았다. 교회에서 어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쌓여갈수록, 어느새 그들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만나는 초등학생 대부분은 장년들의 자녀였고, 내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 또한 청년인 우리를 대하는 장년들과 같았다. 그랬다. 나에겐 소통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소통할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학교에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이 많았다. 반별 학생이 많지 않아 담임 교사는 각 학생에 대해 잘 아는 편이다. 아마도 부모 다음으로 많이 알 것이라 감히 짐작한다. 물론 학생들이 교사를 아는 바도 같다. 상담을 한번 하면 2~3시



간은 기본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심지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도 학교에 들러 교사들을 만난다. 졸업 후에도 함께 독서모임을 하자는 학생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다. 또한 나는 교회의 청년부 간사로서도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비롯하여 일반 청년들과 만난다. 청년들은 나와 세대가 다르지만 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다. 도리어 청년들은 어른을 원한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삶에 관여하는 그런 어른을 달라고 말이다.

기독교신앙은 '대대로(generation to generation) 전해지는' 신앙이다. 전해진다는 건 응당 전하는 세대와 전해받는 세대를 전제한다. 그리고 이런 세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상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하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자는 언제나 이중 정체성을 갖는다. 그렇다. 우리는 앞선 세대이면서 오는 세대다. 우리는 앞선 세대로서 우선적으로 다음 세대가 처한 사회적 환경과 고민 등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에게 어깨를 빌려주고, 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많은 방향성이 있겠지만, 특별히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와 여자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젠더), 부모와 자녀가 어떤 소통을 해야 하는지(세대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를 교회

가 아닌 어디서 배울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오는 세대로서 앞선 세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앞선 세대 또한 이해해야 할 역사적 의무도 있다. 더 나아가 앞선 세대에게 신앙을 배워야 한다. 물론 배울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없다는 성토가 많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가 위치한 세대가 어떠한지 세대 간의 경쟁과 단절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특별히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야 한다. "어른을 달라." 바로 이것이다. 물론 이 모든 건 전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전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FAITH & LIFE**



 글쓴이 김병재

아세아연합신학대(ACTS) 대학원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시골에서 아내와 함께 가을, 선율, 노을 세 자녀를 키우며 살고 있다. 화성의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공장노동자, 은혜의동산교회에서 서리집사, 은동기독교학교 교육연구원 연구원, 청년부 간사 등으로 섬기고 있다. 신학과 철학, 교육의 관계에 대해 관심이 많다.

‘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소통하기

노희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석사)

“요즘 어린 친구들은 교회에서 잘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혹시 교회에서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청년부의 임원에게 염려하는 장면이 연상되는가? 그렇다면 놀라지 마시라. 위의 말은 교회 청년부에서 20대 후반의 섬김이들이 같은 청년부 20대 초반 동생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다. 이 에피소드는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교회 내 세대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단순히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라는 범주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언급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세대 갈등과 소통’에 대해 짙은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 자주 거론되는 세대 문제는 현재의 청년 그리스도인 수 감소로 인해 다음 세대로 믿음의 계승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여러 기독교 미디어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개선을 위한 시도를 촉구한다. 주로 제시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기존 주일 예배 방식이나 모임 형식 등을 대폭 수정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이제는 문제의식을 발현하는 단계를 넘어 제대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소위 ‘청년과 기성세대 갈등’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단서가 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세대 갈등과 소통’ 문제에 접

근하려면 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세대 갈등에 있어서 교회의 특수성은 사회에서와 달리,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닌 신앙적 가치관의 계승 여부가 핵심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기독교 문화는 게토화되어 기독교의 가치관이 비기독교 문화권으로 전해지기보다 기독교 문화권 내에서 전달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가치관 전수가 조직의 존폐 여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기보다 기존 가치관이 변질될 것을 우려하여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세대 갈등은 사회적인 맥락보다 신앙적 가치를 고수하는 방법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예로, 주일 성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개인이 인터넷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읽어도 된다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물론, 세대에 따라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경향성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 내 갈등 원인을 ‘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위의 일화처럼, 신앙적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에 있어 같은 세대 구성원들끼리도 충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직의 관점에서 세대 갈등의 원인을 살펴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가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나 실상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이와 직분에 따라 수직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청년’으로 호명되는 20, 30대 성인들



LET'S TALK

은 다음 세대로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기성 세대와 함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일꾼'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은 기성 세대와 '동등한 동역자'로서 그 독립성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교회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혼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몇몇 대형교회에서 미혼이라는 이유로 30대가 훌쩍 넘은 성인들을 기혼 부부들과 구별 지어 청년부에 소속시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성도들은 조직 내부자로서 수평적 관계 안에서 동등한 지위가 아닌, 수직적 관계를 요구 받으며 모순을 느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회 내 세대 갈등은 성경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통합하여 함께 사역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과 편의를 기반으로 성도들을 구별 지은 후, 우세한 세력이 그들의 방식대로 신앙적 가치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세대'보다는 조직 내부의 맥락이 우선적인 원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회의 '세대 소통 문제'는 오히려 세대주의적 사고를 벗어나야 해결책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와 같은 갈등 양상을 극복하고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소통할 수 있을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막연하게 느껴진다. 이를 돕기 위해 성경 속에서 기준에 우리가 갖고 있던 '세대' 개념을 재정의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보았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성령이 세대에 따른 역할의 구분을

넘어서 그 개념을 전복시킨다. 오히려 우리가 세웠던 '다음 세대'의 정의가 한계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그 말씀을 보면 젊은이, 늙은이의 역할이 세상에서의 요구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보통 예언이나 환상처럼 미래에 대해서 조언하는 일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일로 여겨진다. 그리고 '꿈을 꾸는 것'은 늙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소외된 노인들보다 젊은이들에게 허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이'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고정관념'은 중요하지 않다. 예레미야에게 예언자로서 부르심은 청년의 시기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은 나이는 80대 이후였다.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다음 세대'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부터 믿음을 전달받은 사람들로 나이와 크게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모두와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영적 가족들과 진정한 친구로서 소통하는 일에 굳이 사회에서 정의한 '세대' 개념이나 역할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FAITH & LIFE**



글쓴이 노희영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문화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 학위 논문으로 초대형교회에서 찬양팀, 소그룹 리더로 섬긴 경험과 영화 학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에서 예술분야 청년들의 섬김운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서울드림교회 빌더스(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세대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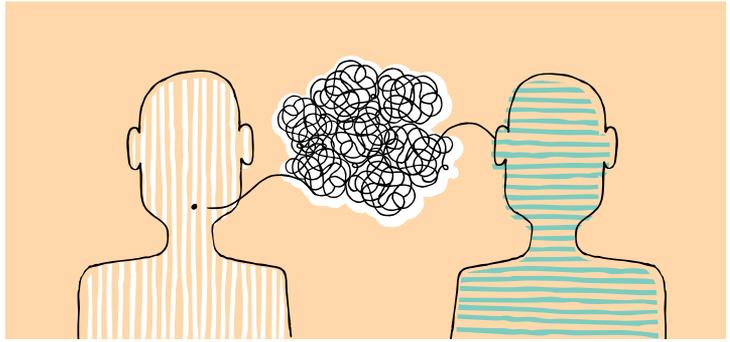
조지혜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다. 생계를 위해, 그리고 자녀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부모님은 아침부터 밤이 늦도록 일을 하느라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다. 부모님을 대신하여 할머니는 언니와 나를 돌보며 빈자리를 채워주셨다. 어렸을 때 나는 꼬마 선생님이 되어 글자를 모르던 할머니에게 간단한 숫자와 글자를 가르쳐주는 놀이를 하기도 했다. 글을 읽을 수 없었던 할머니를 위해 구역예배를 드릴 때 할머니의 옆에서 성경과 찬송가를 대신 찾아 퍼 드리며, 할머니와 나는 세대를 뛰어넘어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다. '세대 소통'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하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신 할머니와 함께 보낸 유년시절이 떠올랐다.

2001년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면서, 운이 좋게도 캠퍼스에서 마음이 고운 동기들과 선배들을 많이 만났다. 한 학년에 열다섯 명 남짓한 소수가 모인 전공이었기에 우리는 밤을 새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동기들과 선배들의 사랑 덕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과방에서, 자취방에서, 선교단체 동아리방에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 성경과 찬양을 알려주고,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신앙서적을 선물하며 믿음이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로 한걸음씩 인도해주었다. 도전적인 질문들을 하며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나의 거친 마음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주고 녹여주었던 캠퍼스 예배자들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갈 수 있었다. 할머니의 신앙을 곁에서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나는 대학에 들어와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거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었다.

2009년에 가장 가까운 대화 친구로 지냈던 동기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은 이른 나이에 중간세대 엄마로서 자녀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다. 아이가 한창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나는 호기심 많은 아이의 대화 상대가 되어주느라 밤이 되면 목이 잠기고 녹초가 되곤 했다. 석사과정을 중단하고 아이를 전담하여 양육하는 것이 매우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할아버지'를 '아아고지'라고 발음하며 가족들의 호칭을 배워가던 아이의 모습이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비록 서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한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체험적으로 깨달아갔다. 이제는 11살이 되어 몸도 마음도 훌쩍 큰 아이가 나의 옆에서 재잘거릴 때마다, 끊임없이 세상을 배워가며 소통하는 아이의 모습이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할머니의 살결을 느끼며 소통했던 유년시절, 캠퍼스에서 동기들과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배워갔던 학생시절, 엄마가 되어 어린 자녀의 몸짓과 소리에 반응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던 육아의 경험을 통과하면서, 어느새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타인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석사과정에서는 ‘치유적 대화’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박사과정에서는 학교 밖의 청소년 활동가들과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이제는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나에게 세대 소통은 어려운 주제로 남아있다. 우리에게 세대를 넘어 소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로 인해 때로는 관계의 상처와 고통을 경험한다면, 소통을 가로막는 벽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20년간 살아온 캠퍼스 생활을 돌아볼 때, 2020년 현재 나는 캠퍼스가 비교의식과 경쟁으로 병들어 가며,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들이 드물어졌다고 느낀다. 하지만 어려운 캠퍼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배 예배자들을 만나며 느끼게 된 것은, 청년들의 마음에는 아직 조건 없는 사랑과 소통을 원하는 순수한 갈망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세대가 변해감에 따라 예전과는 다른 소통의 방식과 형식을 필요로 하겠지만, ‘소통의 갈망’이라는 본질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영혼의 배고픔으로 존재하고 있다. 나는 캠퍼스에서 청년 예배자들과 친구처럼 함께 예배하고 공부하면서, 좁게만 느껴지는 이 곳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따뜻한 만남들을 이어올 수 있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고난과 굴곡을 인내함으로 통과하고 있는 신실한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마음에 깊은 위로를 얻고 캠퍼스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 후배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나는 도리어 그들의 삶을 통해 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많다. 세대를 넘어 소통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교제와 교통에 의지하여, 나이의 옷, 권위의 옷, 판단의 옷을 잠시 벗어두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체험한 깊은 사랑이었으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소통을 열어준 소중한 통로였음을 떠올려본다. **FAITH & LIFE**



 글쓴이 조지혜

서울대 교육학과 박사과정 중에 있다.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 정회원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캠퍼스 예배자로서, 서울대학교회 간사로 섬겼고, 대학원생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긴 호흡을 하며 천천히 꾸준하게 걸어가기

안정민 (도서출판 고북이 대표)

중국의 호도협은 페루의 막추피추, 뉴질랜드 ‘밀퍼드 사운드’(Milford Sound)와 더불어 세계 3대 트래킹 코스로 꼽힌다. 2015년 GMTT(Global Mission Team Training)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호도협 트래킹을 했다. 건강상 높은 고산 지대를 올라가는 게 걱정이었지만 심호흡을 하며 5시간 넘게 산을 올랐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화소 높은 카메라로도 담기지 않았다. 자연의 장엄함 앞에 서자, 지나온 시간이 영화처럼 흘러갔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굳은 결심의 결과였을까? 나는 그 해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GBS(Global Bridge Of Sharing) International’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행정 간사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춧불 정국으로 한국 사회는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도리어 후퇴하며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 처한 상황은 각기 다른데 천편일률적인 답을 제시하는 설교와 더불어 신앙과 삶을 분리 시킴으로써 종교적 형식만 남은 한국 교회는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아모스 5장 24절)는 예언자적 외침을 잃은 지 오래 된 것이다. 이런 한국 교회의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여 가장 먼저 이 단체가 한 일은 ‘신학’의 재정립이었다. 초기에는 ‘청년사역혁신 포럼’이라는 형태로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폭넓은 인문지식을 함양하면서 교회의 청년사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포럼을 진행했다.

하지만 포럼은 단회적이며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밀도 있는 방식으로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모임인 ‘청년신학아카데미’를 개설했다. ‘청년신학아카데미’는 일반적으로 강의를 듣는 형식을 지양한다. 1시간의 강의를 듣고서 소그룹으로 흩어져 1시간 정도 토론을 한 후, 다시 모여 소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강사에게 질문을 한다. 처음엔 토론 형식이 어색하여 참석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방식이 ‘청년신학아카데미’의 특징이 됨으로써, 서로 함께 배우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이 되었다.

비록 이 선교단체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동안 여기서 만들어진 콘텐츠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청년신학아카데미’ 모임에 와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 보람을 느끼곤 한다. 이 모임을 통해 오늘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성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

‘청년신학아카데미’의 기획위원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쉽게도 기획위원 모두 남성이고 현재 신학생이거나 목회자다. 모임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청년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접근하는 과정에서



성실하지 않아서 힘이 실리지 않는 것 같고, 시니어들은 오랜 시간 고민하며 쌓아온 내공은 있지만 여전히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려고 애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려면 서로를 향한 포용의 각도를 넓혀야 한다. 그럴수록 더 깊어진 품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흐름에 함께 호흡을 맞춰 걸어가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필자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었다. 1인 출판사를 창업하게 된 것이다. '천천히 꾸준하게 좋은 책을 펴내자'라는 의미를 담아 출판사의 이름을 '거북'을 연상시키는 '고북이'라고 지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가 창업이라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와 창업 동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비롯되었다. 필자가 출석하는 서향교회는 중심 사역 중 하나로서 '청년 창업'을 모색하고 지향하는 교회여서 교회 공동체가 창업의 계기와 매개가 되어준 것이다. 서향교회 안에 설립된 '고엘뱅크'를 통해 출판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었고, 출판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출판할 책의 교정, 편집 디자인 작업에서 교회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있어서 비록 1인 출판사이지만 큰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의 시니어가 출판사 창업 과정과 출판 작업에 큰 힘이 되어주었는데, 그 시니어는 이른바 '라떼'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끝

어오거나 내세우지 않고 현재의 공동 작업에 필요한 이야기를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이야기해주어서 서로 즐겁게 소통하며 출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판 작업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여러 지체가 소통하며 작업을 도와주고 있어, 힘을 내어 편집과 출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천천히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현재 내가 맡은 일을 하는데 있어 긴 호흡을 하며 천천히 꾸준하게 걸어가려고 한다. **FAITH &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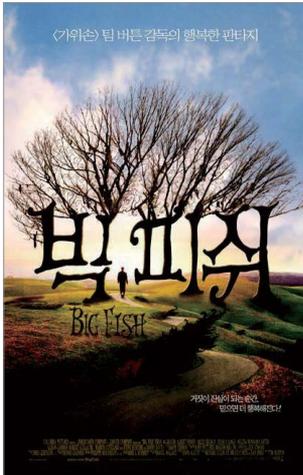
 글쓴이 안정민

선교단체 GBS International의 행정 간사로서, '청년신학아카데미'에서 실무를 맡고 있다. 또한 '도서출판 고북이'를 창업해서, 인문학 중심의 저서 발행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 서향교회 청년이다.



아버지와 아들, 어느 화해의 메타포

추태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빅 피쉬〉
(2004. 팀 버튼 감독)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결혼식 날, 그 축복의 날 피로연 자리에서 아버지는 술 취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축사한다는 명분으로 또 그 이야기를 꺼내들었지요. 무슨 있지도 않은 '빅 피쉬'라니...

그날부터 아버지와는 거의 대화없이 지냈습니다. 중간에서 어머니가 다리를 놔주셔서 그나마 근황은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물론 사업차 그랬겠지요. 어느 날 문득 귀가하면 당신은 손님 같았는데 또 그 지겨운 빅 피쉬 속편을 늘어놓았어요.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다정했고 어머니에게는 사랑스런 남편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연극 아니었던가요. 아버지 마음은 늘 집밖을 맴돌았고,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家長)의 책임과 역할만 잘 했던 남편이자 아버지. 마음과 영혼은 밖을 나돌았기

에 집은 아버지에게 어찌면 감옥 같았는지 모릅니다. 넓은 세상을 훨훨 날고 싶은 새라거나. 강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는 빅 피쉬를 얘기 했으니, 자유로운 한 마리 물고기가 되고 싶어 했는지도 모릅니다. 낚시꾼들에게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그 빅 피쉬가 아버지 결혼반지를 꼴깍했다는 진짜 '쌍구라'를 자랑스럽게 얘기 했지요.

또 쓰러져가는 집의 마녀의 유리눈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죽음을 볼 수 있으며, 괴물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었다는, 참 어이없는 이야기. 친구된 거인과는 길가다 숲 속에서 평화의 파라다이스를 만나고, 거기서 열 살 어린 소녀가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로맨스 설정은 정말 유치하기까지 했지요. 한 거인이 서커스단에 취직했는데, 알고 보니 단장이 외로운 늑대였다는 픽션은 어떤 엽기공포스릴러를 흉내냈다고 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아, 이제 애비는 심장병이 깊어져서 어찌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 같구나. 몇 년 전 너의 결혼식의 축사는 미안하게 되었다.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하마. 용서해 주겠니? 실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어려울 때가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많은 장애가 어리고 젊은 세대 앞에 놓여있기 때문이지. 아버지는 아들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흥미롭고 신기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마리 물고기가 강물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고 생각해. 이 아버지는 인생을 그렇게 비유해본다. 수많은 낚시꾼이 드리운 떡밥에 걸리지 않고 유유히 자기 길을 찾아 가는!

자식들이 부모의 삶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아주 축복된 순간이 온다면 그 때 조금 깨닫게 된다고 할까.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산 아래에서 정상을 올려다보는 것 같지. 아래에서 거꾸로 올려다 봐야하니 높은 곳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치 아니겠나. 그러니 네가 역지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 아버지는 더구나 호기심 많고 남들이 얘기하는 진취적인 성격이었으니 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겠지. 나의 인생철학이라면 "쉬지 않고 움직이자"였고,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왔으니 멈추면 실상을 볼 수 없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꿈꾸니를 보게 되는 경우란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은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본다. 사랑이 엮어주지 않으면 세대 간의 갈등은 오히려 자연스런 현상이지. 아버지와 아들 간에 있다는 외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본다. 자녀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지. 그게 자연(Nature) 아니겠느냐.

나의 빅 피쉬 이야기를 사랑의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인생관이 그리고 내 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단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유언은 이 말이다. '인생은 아름답다!' 한 마리 물고기가 강물에서 유유히 헤엄 치며 자기의 길을 가듯..

다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빅 피쉬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었니?" 하고 물으셨지요. 빅 피쉬 이야기는 모두 진실이었네요. 조금 과장되고 극적으로 표현되었을 뿐. 그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대했던 고유한 스타일, 아니면 인생관이라 여겨집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모인 이들 속에 마녀, 괴물, 서커스 단장, 삼쌍둥이 자매, 자칭 시인 등등 모두 참석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아련한 추억의 여인이며, 과대 성장한 거인, 장난기 어린 서커스 단장, 어여쁜 중국 미녀 자매, 시인이었지요. 아버지가 빅 피쉬였다는 것을. 이제 강물과 같은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시면서 마음껏 헤엄치시며 지내세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FAITH & LIFE**



글쓴이 추대화

안양대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 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Dr. phil)을 공부했다. 저서로 <광장에서 문화를 읽다>, <영화, 그 의미에 길을 묻다>, <상상력의 유혹>, <대중문화 시대와 기독교 문화학> 외 다수가 있으며 문화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세대간 대화의 예술 플랫폼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신구 세대의 시각차가 사회와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을 띤다. 특히 종교에 대한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세대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예술만큼 좋은 장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렘브란트(Rembrandt)의 그림을 본다고 치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렘브란트는 평생을 성경 그림에 헌신한 화가였고 기독교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우리가 렘브란트를 살핀다면 그의 삶과 예술의 구심점인 진리체계에 대해 알게 되고 그가 어떻게 수많은 명화를 제작해냈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헨리 나우웬(Henri Nouwen)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보며 “복음서 전체가 그속에 담겨 있고 내 인생 전체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urer)의 <큰 잔디 덩어리>(1503)(그림1)는 마치 거목을 그린 것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가 보여준 자연세계에 대한 충실한 관찰은 훗날 망원경에서 현미경까지 인간의 시각을 향상시키는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림 1

뒤러가 이렇듯 잔디 하나하나를 세세히 그린 것은 창조주가 지으신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야생화, 백합 등의 식물과 부엉이, 산토끼, 코뿔소, 다람쥐, 심지어 사슴벌레의 자태까지 묘출하였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적극 지지한 화가답게 그는 피조계를 지으신 창조주의 황홀한 솜씨에 매료되었다. 연필 또는 수채로 그린 그림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사고를 활짝 열어준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건만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위의 세상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하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도 등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즉 세상과 동떨어진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다른 세대와 소통하려면 매개물이 필요한데 예술을 멀리하면 할수록 그만큼 기회의 폭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인근의 전시장을 방문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그 소감을 서로 나누면 어떨까.

캐나다의 미학자 시어벨트(Calvin G. Seerveld)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말씀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늘에 ‘무지개’를 만든 것을 기뻐하셨고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예술적 선물’을 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했다. 시어벨트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무지개’나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나 ‘비유들’을 자의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의 몫이란 예술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며, 주님이 왜 이러한 달란트를 우리의 피조계에 허락하셨는지, 과연 예술이 거룩한 ‘무지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기루’로 그치고 마는 것인지 하는 물음 따위이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나온 회화로 정물화의 첫 시도로 불리운다. 그중에서도 ‘바니타스 정물화’의 대표적인 화가 피테르 클레이즈(Pieter Claesz)는 <해골이 있는 정물>(1630년경)(그림2)에서 으스스한 화면을 선보였다. 탁자 위의 해골도 그렇지만 꺼진 촛불과 옆질러진 유리컵, 시계 등은 일제히 전도서의 ‘헛됨’(Vanitas)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낡은 고서는 지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7)임을 암시한다. 이 그림이 12년 휴전 기간 말(1619년 경)에 제작되어 전쟁의 공포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네덜란드에 창궐했던 페스트 공포 때문에 제작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제일 유력한 근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비하여 세상 유혹과 욕망을 경계하라는 당시의 기독교적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현실, 그리고 내일, 지상적 삶 너머에 대해 토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그림들은 은유와 암시의 풍부성을 잃어버림으로써 무미건조한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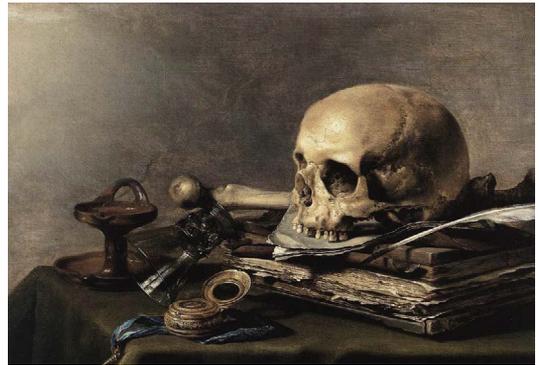


그림 2

술품이 관객의 지식 정도를 측정하는 ‘감독관’처럼 변질해버린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예술을 경시하거나 멀리하는 이유가 되어서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꾸준히 “왜 예술은 영적인 동경과 영원한 질서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을 던지면서 현대 문화의 딜레마에 대한 성찰과 열띤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삶의 양식 이면의 가치체제인 문화를 떠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럴 때에 기독교 세계관은 소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미술작품은 소통의 통로를 제공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현대회화의 발자취>, <한국미술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칼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미루어지고 아내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 가족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일주일 정도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퍼즐 그림도 맞추고, 보드게임도 하며 지냈지만, 오래지않아 나는 나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슬슬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즈음 게리 토마스(Gary Thomas)의 <부모 학교>(Sacred Parenting)에 대한 서평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책이었다.

<부모 학교>의 무게 중심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있다. 이 책의 부제목을 달아본다면, '자녀양육을 통한 영성훈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도록 부름 받은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서 영적 통찰을 얻을 수 있다."(20쪽)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간단히 나누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자녀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기 보다는 자녀에 대한 감사 기도를 더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녀에 대한 감사보다는 고칠 점에 집중한다. 그러나 게리 토마스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나 단점에 집중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보다 아이들로 인해 감사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아이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를 인해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특성들을 꼽아 보며 감사해야 한

다"(110쪽)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녀들이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종종 부모들은 자녀의 단점에 집중한다. 문제는 단점만 강조하다보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공평하게 말하고 이를 감사해야 한다. 게리 토마스는 이 책을 통해 나에게 묻고 있다. 당신은 자녀들 앞에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 물론 우리 부부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자녀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한다. 하지만 자녀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어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도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감사를 드렸는지 스스로 묻게 되었다. 아이의 존재 자체가 감사였던 시절을 어느 사이엔가 잊고 살았던 것이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 모습에 더 생생히 떠오른다면, 만일 자기들이 부모에게 감사의 제목보다는 차라리 짐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13-114쪽)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그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글이 내 마음을 찌른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만 '바리새인 같은 사람'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



〈부모 학교〉(Sacred Parenting) / 게리 토마스(Gary Thomas) / CUP / 2007

바른 관계로 성장하는데 장애물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점이다. 게리 토마스는 “물론 당신은 그 아이를 위해 죽을 마음까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죽으셨다.”(162쪽)고 말한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식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며 살아 왔다. 내 삶을 돌아보니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기독교대학과 기독교학문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기독교대학의 주인이시며, 학문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녀의 문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안다. 우리의 자녀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신들이 더 자녀를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자녀 양육의 문제는 내 자식의 문제이니 잠시 물러나 계시라고 무언의 압력을 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자녀와 같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이 직장 상사나 동료가 될 수도 있다.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과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길 원하실 수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을 읽는다고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의 삶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를 통해 자녀의 모습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나를 오래 참으시는 주님도 보았다. 또한 나는 이 책을 통하여 부족한 자녀의 행동에 화가 나기보다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되는 기회를 가졌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부모 학교〉를 쓰도록 인도하신 것은 어쩌면 책을 읽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변화로의 초청장을 선물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자녀 양육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 참여하길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지원

백석대 보건학부 교수이다. 연세대에서 재활학을 전공하였고, 해부학교실에서 근무하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회사일로 바쁜 중에도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아내와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과 기독교학문학회 부회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김성한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 평화교육가)



COVID-19로 표기되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변화는 놀라울 뿐이다. 이 새로운 질병의 전파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가 시행되고 있다. 3월이면 개학하던 학교는 계속해서 개학을 미루다 마침내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다. 아이들이 집에서 머무는 동안 부모의 재택근무, 휴직, 실직이 겹쳐지면서 정작 가족은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가족과 양육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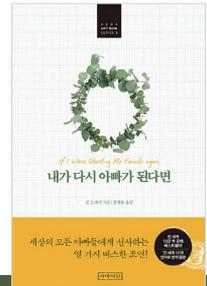
나도 어쩌다 아이 넷을 '아내가 낳고 키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늦둥이로 온 막내가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큰 아이들은 벌써 성인이 되었다. 아이들이 그렇게 훌쩍 자라는 사이에 나는 좋은 아빠였을까? 책을 집어들면서 가졌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다. 존 드레셔가 제시하는 10가지 제안은 더 이상의 요약, 강조, 압축, 재구성이 불가능한 십계명 같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종교의 율법이나 수학 공식' 같은 법칙이라는 뜻은 아니다. 각각의 제안은 본인의 경험에서 시작되었기에 진정성 있고, 사려 깊다. 심지어 부드러우며 아름답기까지 하다.

제목만 슬쩍 살펴보자.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다', '자녀들과 더 많이 웃고 싶다',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더 정직해지고 싶다',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많이 격려하고 싶다', '사소한 일에 더 신경을 쓰

고 싶다', '소속감을 심어주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나누고 싶다.' 심심한 결혼식 주례사와 같이 너무 뻘해 보이는가? 그러나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 이 열 가지 제안은 지난 두 달 막내와 거의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어느 때 보다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으나 정작 가정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우리는 다 안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가까운 공간에 함께 있어도 관계의 내용과 질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로서의 오랜 경험과 반추 가운데 다듬어져 등장하는 이 10가지 제안은 '육아를 위한 팁'이나 '가정을 지키는 기술'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대본 없는 부모의 역할을 하며 가정을 이루게 된 이들에게 주는 사려 깊은 지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자는 아빠의 역할과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지만, 아내가 읽어도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제안들이었다. 아빠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서 번역본의 제목이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으로 결정된 것 같다. (동의한다!) 하지만 원제인 <내가 내 가족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If I Were Starting My Family again)이어서 저자의 의도는 성취되었을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아빠로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내가 다시 아빠가 된다면》 | 존 드레서 | 홍병룡 역 | 아바서원 | 2018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평의 초고를 읽은 아내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읽었다. 이 책을 읽은 우리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다. 물론 지금 우리 곁에 24시간 머물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과 함께였다.

COVID-19로부터 N번방에 이르기까지 크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의 원천으로서의 단단한 정체성과 건강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단지 내 아이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의 맺었던 관계를 떠 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혹은 거리둘 관계를 갖지 못한 이들도 떠올리게 되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모든 것을 환원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의 기초 단위로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COVID-19의 위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 준다. 학교가 문을 닫고, 국경이 닫히고,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함께하는 예배가 멈춰졌다. 그렇게 많은 것들로부터 사회적 거리를 둔 사람들은 (가정이 있다면-) 이제 가정을 기초단위로 지내고 있다. 많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내가 사랑해야 할 이들이 있다.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함께 보낸 그 시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저자의 10가지 제안은 예수의 십계명 요약과 같이 미국과 한국이라는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갖는다. 이 얇은 책 하나가 이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다면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다. 아쉬운 것은, 이 책을 너무 늦게 만났다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아직 막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가족과 이 열 가지 제안을 함께 실천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성환

메노나이트중앙위원회(MCC) 평화교육가이다. 한국기독교학생회(IVF) 춘천 등 여러 지부의 대표간사와 미디어 디렉터로 사역했고 밴드 코드셋의 리더이다. 현재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다.

십대를 위한 어느 할아버지의 선물

장승기 (높은 뜻 씨앗 스쿨 교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老철학자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말로 이 시대의 십대를 위해 남긴 인생이야기”

만약 심오하고 난해한 철학의 언어로, 지적 탐구심을 자극하는 책을 기대하였다면 이내 실망할 것이다. 오히려 이 시대를 가르칠 존경받는 스승이 십대의 눈높이로 ‘자신을 맞추어’(under-stand), 그들에게 자주 있을 법한 질문들에 대하여 쉬운 언어로 진솔하게 답을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70대 어느 할아버지가 손자의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주는 책. 어쩌면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저자에게는 철학논문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미 어른이 된 독자들, 삶의 질문들에 나뉘는 철학과 신념을 품고 살아가는 성인 독자라면, 처음부터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치 산나물의 습습한 맛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눈 높이로 책을 읽은 필자에게 리뷰하는 필자에게는 저자 손봉호 교수의 말씀들은 언론이나 학술포럼 등에서, 멀찍한 저명인사로만 보이던 대표적 지식인의 것이 아닌, 습습하지만 푹푹했던 청소년시절의 저자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어 즐거웠다. 저자 손봉호 교수는 ‘신앙과 지성’의 괴리 없이 멋진 삶으로 살아내어, 우리 사회에 미친 큰 영향으로, 빛과 소금되어준 대표적 지식인 사회운동가이다. 그리고 공동저자 옥명호는 개혁적 복음주의자들의 소통

의 장이 되고 있는 <복음과 상황>의 편집장으로서, 우리 시대 염색 문화로 물들어 있는 십대들을 대변해서, 손봉호교수가 안내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색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 이 시대의 십대들의 머리 속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런 해시태그로 가득하지 않을까?

#이성 #친구 #가족 #외모 #진로 #공부
#돈 #고통 #신앙

이 해시태그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그들의 SNS에 산재해있지만,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부모들과 어른들에게는 금단의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만약 십대들이 다가와 리뷰를 읽는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는 주위에서 흔히 보기 힘든 ‘좋은 부모 또는 신뢰하는 멘토’의 자격이 있는 분일 것이다. “이성에 대한 감정과 욕구는 자유 아닌가요? 때로는 가족이 왜 제일 힘든 걸까요? 하기 싫은 공부,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나요? 왜 인생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신앙, 없다고 불편하지 않잖아요?” 등. 이러한 질문에 관해 여러분은 준비된 답을 가진 어른인가? 서평을 하는 필자는 26년 동안 미션스쿨과 기독교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과 상담해 온 교육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 끈대가 아닌 매력적인 설명을 해주기는 쉽지 않다.

〈답이 없는 너에게〉 | 손봉호, 옥명호 | 홍성사 | 2015



책을 읽기 전 나는 대한민국이 윤리적이고 건강하게 거듭나기 위해 기독교시민운동의 선봉에서 고난에 참여한 손봉호교수의 답이 궁금했다. 그리고 책을 통하여 저자 손봉호 교수가 고지식하게 신앙과 원칙을 지키려했던 청소년 시절, 주일을 안식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해 체력시험을 보지 않아 중학교로 학력의 중지부를 찍을 뻔한 이야기, 주일에 나눠주는 수험표를 받으러 가지 않아 대학입시를 못치를 뻔한 이야기 등을 통해서, 공부보다 신앙원칙을 더 상위가치로 여겼던 성품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가 오랜 기간 함께 해 온 장애인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설립 등의 시민운동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한편 나는 평소 변증에 관심이 많았기에, '고통문제로 인해 신앙에 회의적인 십대'를 위한 손봉호 교수의 답도 궁금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중 불교의 관념적이며 현실도피적인 열반 대신, 기독교의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죄와 고통을 대신 체휼하는 성육신의 신비, 그리고 고통을 통과하며 마음이 가난해진 인간을 품어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신비의 진리를 주목하신 대목도 인상이 깊었다. 특별히 손봉호 교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철학자로서, 파스칼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철학을 조롱하는 것이 진정한 철학을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한 철학자를 비판하지 못한다. 절대자를 절대자로 받

아들이지 못하면, 상대적인 것을 절대자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세상에는 이념이나 정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모든 이념이나 사상을 조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행복한 고난이었던 기독교대학교운동을 해 오면서, 항상 품었던 질문이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일까?" 나는 책을 덮으며, 언젠가 저자 손봉호 교수를 직접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이 질문을 직접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FAITH & LIFE**



✍ 글쓴이 장송기

높은 뜻 씨앗 스쿨 교감이다. 한국교원대 지구교육과와 북한대학원대학교 통일교육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다. 한국협동학습연구회 과학교사 대표, 좋은 교사 운동 과학교사 대표, 소명중고등학교 연구소장을 역임하였으며,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이다.

<창조를 통한 사고 : 문화 비평의 도구인 창세기 1장과 2장>

추천 : 웨슬리 Wentworth (Wesley Wentworth) 선교사

해제 :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



이 책은 총 170쪽이니 비교적 두껍지 않은 책이다. 그 중에서 책에 대한 찬사 4쪽, 내지, 목록, 용어설명, 참고도서, 성경 색인, 주제 색인 등을 빼면, 본문은 145쪽으로 줄어든다. 그러니 부담 없이 들고 읽을 수 있다. 이 책의 난이도에 대해 말하면서 저자는 자신이 대학생이 되어 이 책을 읽는다는 기분으로 책을 썼다고 했다 (137쪽). 그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다루는 주제의 무게에 비하면 매우 쉽게 읽힌다. 하지만 윌리엄 에드가(William Edgar)의 표현처럼 이 평이함은 ‘속기 쉬운 단순함’(deceptive simplicity)이다. 왓킨은 이 단순함을 통하여 독자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때로 뒤통수를 치고 그 안에 감춰진 예리한 무기로 사정 없이 찌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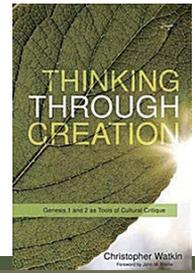
왓킨이 이 책에서 시도한 작업을 씨 에스 루이스(C. S. Lewis)의 말을 빌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것을 내가 태양이 떠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내가 떠 있는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11쪽). 왓킨은 성경이 진리임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자 했고, 그 시도는 꽤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왓킨이 이 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가 인용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말에서 잘 대변되었다(138-139쪽). 그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다.

우리의 문화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려면 결국 그 문화의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문화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도리어 성경을 통해서 문화를 해석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문화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문화가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있다. 비로소 그 문화에 충격을 주고 변화의 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에 정통해야 한다. 곧 성경과 문화이다. 문맥으로부터 유리된 성경 구절을 이런 저런 문화적 현상에 적용하고자 해서야 아무런 힘이 없다. 먼저 성경을 전체 흐름을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문화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야 한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신발을 신고 1마일을 걸어가야 한다”는 격언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문화의 신을 신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139쪽). 세속 사람들의 고민과 연구의 치열함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무작정 그 문화를 비판해 가지고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한 선생 중의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왓킨은 자신이 서 있는 전통을 ‘아우구스티누스, 칼뱅, 반 틸, 밀뱅크, 뉴비긴, 스토트’라고 밝혔다(143쪽). 모두 성경과 문화의 문제에 정통한 인물들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왓킨은 패턴을 만들어서 문화에 적용한다.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하나의

〈Thinking through Creation – Genesis 1 and 2 as Tools of Cultural Critique〉 I
 크리스토퍼 왓킨(Christopher Watkin) | P & R Publishing | 2017



지침으로 삼아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거기에 사용된 성경의 자료가, 삼위일체, 물리적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창세기 1-2장까지 다루므로 거기서 이것을 뽑은 것이다.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적용되는 문화적 문제를 설명한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그 문화적 문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그 문화의 약점을 해소해 주는지를 설명한다.

삼위일체를 예로 들면, 삼위일체는 신 존재의 문제이다. 이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의 문제는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스로 대변되는 존재의 단일성과 다자성의 이분법이다. 이 항구적인 철학적 난제는 영원한 이분법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일복수로 존재하므로 거기에는 단일과 다자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단일복수성은 단일성과 다자성의 대립을 해소한다. 이것을 왓킨은 대각화(diagonal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런 방식으로 왓킨은 문화 속에 존재하여 해결이 안되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분법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일전(2019. 11+12월호)에 소개했던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의 〈Religion in the University〉가 대학에서 기독교적 이론의 가능성을 마련했다면, 왓킨은 그것의 실례를 제공했다. 알 월터스(Al

Wolters)의 찬사로 리뷰를 마치기로 한다. “나는 이 책이 이 분야의 고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 책 저자: 크리스토퍼 왓킨(Christopher Watkin)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모나쉬대학교(Monash University) 교수이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 종교와 신학을 강의한다. 캠브리지대학교(Cambridge University)에서 공부했고(Ph.D), 현재 ‘새로운 물질주의’에 대한 인간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다. **FAITH & LIFE**



 글쓴이 황명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목사이다.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간사로 활동하다가, 영국에 유학하여, 서레이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5:22-33’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했다. 에스라성경대학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등에서 강의했고, 지금은 목회와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코드다〉(IVP), 〈겸손〉(IVP), 〈구원과 윤리〉(대장간), 〈성령과 윤리〉(생명의말씀사) 외 다수가 있다.

나는 왜 초등학생의 과학적 탐구에서 공감하지 못했는가? - 인식적 감정을 중심으로 -

한문현 (부천초등학교 교사, 서울대 과학교육학 Ph. D)

2000년대 들어 과학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과학적 탐구에 참여하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끄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의 탐구 과정은 흔히 탐구의 필요성, 탐구 문제 선정, 실험 방법 설계, 실험 수행, 실험 결과 및 결론 설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더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교사가 이끌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의 참여 중에서도 학생들의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전략들이 적절히 사용될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를 위해 과학 교육계 일부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발달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응적 교수'라고 하는데 반응적 교수는 과학적 탐구에서 학습자를 능동적인 주체로 이끌 수 있는 수업 전략의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반응적 교수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 인식적 공감 사용이 제안되었다. 인식적 공감은 과학적 탐구에서 학생들의 인지적 및 정서적인 경험을 수용하고 이를 발달 및 정교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교사의 인식적 공감은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고를 직, 간접적으로 촉진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공감이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용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과학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감을 보이기보다 사고, 능력을 평가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전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감이 과학 수업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사

가 이를 사용하기 어려운 맥락에 자주 놓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이기도 한 연구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인식적 공감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질적으로 분석한 질적 사례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 차시의 수업을 촬영한 전사본, 자기 관찰자료, 수업 협의록 등이 질적 자료로 수집되었으며 지속적 반복적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이기도 한 필자가 어떠한 맥락에서 인식적 공감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보았다.

주제는 다음과 같이 범주화될 수 있었다. 첫째, 학생의 수준이 높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것. 둘째, 탐구에서 용어 사용을 통일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것. 셋째, 학생의 질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대신해서 설명하는 것. 넷째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변인들을 더 잘 통제했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 다섯 번째, 학생들이 당황스럽게 느낄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는 것. 여섯 번째, 학생들이 사고하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고 과학적인 정답을 말하는 것.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탐구가 어떠한 측면에서 유용한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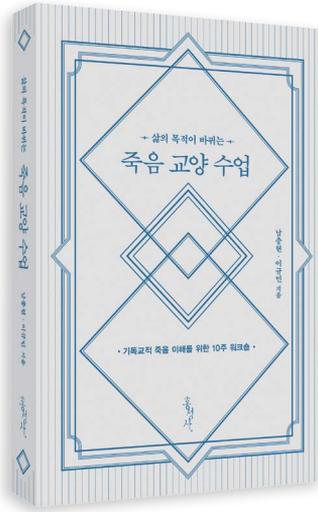
본 논문은 2019년 가을, 제36회 기독교학문학회 교수/일반부 '교육A분과' 발표 논문이며, 전체 논문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www.worldview.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간이 진정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죽음과 대면할 때뿐이다.”

-성 어거스틴(St. Augustine)-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10가지 죽음 교양 수업

죽음 교양 수업



남충현 · 이규민 지음 | 308쪽 | 14,000원

◆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

삶의 의미를 질문하고 계신 분
죽음교육의 필요를 느끼는 목회자
시니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및 강사

홍성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눈세’ 캠프

— 높은뜻광성교회 & 높은뜻우신교회 기독교세계관학교 프로그램

박신애 (높은뜻광성교회 & 높은뜻우신교회 ‘하눈세’ 담당목사)

1. ‘하눈세’의 의미

‘하눈세’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보기’의 준말이다. 높은뜻광성교회와 높은뜻우신교회가 협력해서 초등학교 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세계관학교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학업과 소명, 재정, 미디어와 문화, 성, 역사(창조론 vs 진화론), 나(정체성), 친구관계, 삶과 죽음 등 아동기 때 다루어 주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을 한 해에 하나씩 선정해서 장차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성경 속에 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2. ‘하눈세’의 역사

‘하눈세’의 역사는 2005년 높은뜻승의교회가 성균관대 기독교동문학 연구팀과 협력해서 진행한 ‘어문세’(어린이문학세계관학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높은뜻광성교회가 분리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균관대 연구팀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고, 2014년에는 교회 내 자체 연구팀이 만들어지면서 GWS(God's Will Worldview School)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부터 프로그램의 이름과 형식을 새롭게 하여 ‘하눈세’ 세계관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3. ‘하눈세’ 운영원칙

- 1) 대상 : 초등학교 학생과 그 부모
 - *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 중 한 분 이상 반드시 함께 참여하게 한다.
- 2) 정원 : 한 학년에 6명씩(총 36명)
 - * 하브루타 방식(토론 중심의 유대인 교육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이 소수정예로 1반 당 최대 6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하눈세’ 연구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함께 모여 연구모임을 갖고 있다. 내용은 주제 관련 강의의 함께 듣기, 성경 하브루타, 논문 및 참고서적 연구, 그림책 연구 및 그림책 수업활동 만들기 등이다. 현재 담당 목회자들을 제외하고 9명의 연구위원이 있다.



'하눈세' 캠프 소감문

뜻밖의 선물



바쁜 일상 속에서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온가족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인생의 'Why'에 대해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잘 생각하지 않았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에 고민해 보면서, 잠시 쉬어가는 심포 같은 시간이었다고나 할까요?

좋았던 것은 평소 다른 교인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하눈세 프로그램을 통해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고인이, 여은이네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프로그램 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식사도 같이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엄마, 아빠, 어린이 이렇게 세 식구가 종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마음을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다른 공간에서 수업을 한 적도 있었는데, 작품을 완성한 후 다시 만나서 아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은 매우 뜻깊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도 맛있었습니다. 떡볶이, 꼬마김밥, 후식 파인애플, 그리고 처음 도착했을 때 테이블에 놓여있던 떡들까지.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섬기시는 분들의 배려와 정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다음 번 교육을 기대하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않고, 부모가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눈세'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선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또는 책도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공부는 꿈을 키우기 위해서 또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인 것 같다. 가족과 함께 더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또 하고 싶다."(유년부 남아린 어린이 소감글)

글쓴이 정은정

이화코리아 대표이사이다. 중국아시아 경제발전협회 대외교류위원회 한국 대표를 맡고있다. 뉘른뚝 광성교회 집사이며 슬하에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신입 및 연임 임원 등기

지난 2020년 정기총회(2월 21일, 금)에서 선출된 아래 임원에 대한 교육청 보고와 등기철차 완료.

- 신입 이사

최태연 이사 (백석대 교수, 2020.3.30~2022.4.1.) : 김성수 이사 (前 고신대 총장) 후임

박영주 이사 (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2020.4.17.~2024.4.16.) : 김승욱 이사 (중앙대 교수) 후임

- 연임 이사

손봉호 이사장 (고신대 석좌 교수, 2020.4.17.~2024.4.16.)

신국원 이사 (총신대 명예교수, 2020.4.17.~2024.4.16.)

유재봉 이사 (성균관대 교수, 2020.4.17.~2024.4.16.)

정희영 이사 (총신대 교수, 2020.4.17.~2024.4.16.)

2020년 춘계학술대회 개최 취소 안내

5월 23일(토), 국립 목포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던, 기독교학문연구회 2020년 춘계학술대회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동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앙과 학문> 25권 1호(2020년, 1/4) 발행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교육학과)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 공동체의 의미 탐색" 외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에서 '학회(기독교학문연구회) => 학술지 <신앙과 학문>'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신앙과 학문>은 기독교 신앙과 일반 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KCI(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이다. 많은 동역회 회원들의 투고참여를 바란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2020년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이사장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이 사 박영주(前 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양승훈(VIEW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홍명식(사카이야 대표),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김미영(한국소토 대표), 김성경(VIEW 실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재완(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김혜정(CUP대표), 문준호(디오스텍 부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진규(서울여대 교수),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이상민(서울국제교사), 이재희(가천대 교수), 유경상(CTC대표),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최용준(한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박문식(한남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총무 오민용(서울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감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편집위원장 송태현(이화여대 교수, 불문학*)

편집위원 김대인(이화여대 교수, 로스쿨), 김종훈(성신여대 교수, 교육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신용철(동아대 교수, 서양철학*), 우중학(서울대 교수, 물리천문학),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교육철학*), 임택태(제주대 교수, 독문학*), 엄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현은자(성균관대 교수, 아동청소년학), 현창기(한동대 교수, 생명과학), 황혜원(청주대, 사회복지학), Lim(미국, Vanderbilt University 교수, 신학)

(*는 신입위원)



VIEW(전성민 대표)

매년 밴쿠버 Regent College와 협력, 여름학기(한국어 수업)를 개설하고 있으며 2020년 여름학기 수업은 아래와 같다.

- COURSES : 여호수아(전성민 교수), 위클리프와 그의 시대(최종원 교수)
- 온라인 강의: 실시간 참여 어려운 분들은 녹화 영상과 교수와 실시간 문답 시간 마련(Zoom 사용).
- 장학 혜택: 학점 당 캐나다달러 70불(2학점 140불, 3학점 210불), 청강의 경우 100불.
- 문의: eunseok12@gmail.com
- 강의 계획서 및 안내 : Regent College의 Summer Programs 페이지를 참고.

CTC(유경상 대표)

CTC(기독교세계관교육센터)에서 2020년 봄 학기, 아래와 같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온라인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 '기본 과정' :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1년 과정, 40여 명이 참여). 2021년에는 어린이 & 청소년 세계관 강사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할 계획.
- 온라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 :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프로그램으로 부모가 먼저 배워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다양한 세미나와 캠프를 함께 진행). 수시 가입도 가능(문의: 010-3673-8439).
- 캠퍼스 사역 :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 세계관' 수업 진행 중.
-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5월부터 '나니아로 떠나는 기독교 세계관 여행 - 말과 소년, 사자와 마녀와 옷장' 세미나(온라인 강좌).
- *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CUP는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며, 더불어 꿈꾸고 소통하며 성경적 비전을 확장시키는 나눔터의 출판을 꿈꾼다.

www.cupbooks.com 문의 : 02-745-7231, cupmanse@gmail.com

- 신간 소식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다니엘서 강해〉(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법!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다니엘서는 정말 비밀의 책인가?
노련한 성서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목회적 상상력과 구약학적 지식, 성경을 해석하는 탁월한 재능과 시대에 대한 이해로, 다니엘서를 이 시대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십자가는 여전히
GOOD NEWS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령의 열매〉
(크리스토퍼 라이트 지음 | 박세혁 옮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20년 2월, 3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2월	2020년 3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0년 2월	2020년 3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980,000	470,000	인건비	일반급여	4,280,000	6,230,000
	임원회비	440,000	420,000		기타급여	400,000	600,000
	일반회비	5,105,000	5,600,500		소계	4,680,000	6,830,000
	기관후원금	2,550,000	2,3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000,000	2,000,000
	사무실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0	0
	CTC후원금	90,000	80,000		통신비	316,720	252,200
	VIEW후원금	920,000	1,100,000		우편료	4,670	29,510
	기타후원금	2,000,000	2,000,000		소모품비	57,000	35,750
	월보구독료	544,000	708,000		비품	0	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893,970	231,730
	기타	0	675,250		퇴직연금	192,240	2,474,060
					교육비	0	0
			회의비		175,350	102,85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110,000	2,800	
			사무비		156,200	156,200	
			기타(지급수수료)		121,055	120,450	
			소계		4,082,205	5,460,550	
	소계	12,629,000	13,403,750				
기타수입	일반이자	0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69,120	88,900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032,190	861,970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101,310	950,87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2,523,400
	기금차입	400,000	0		발송비	0	510,370
	결산이자	0	2,963		소계	0	3,033,770
	예수금	361,880	375,590	기타	CUP기금적립	400,000	0
					세금	293,430	50,450
			잡비		0	74,500	
소계	761,880	378,553	소계		693,430	124,95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일일등록	0	0	세계관 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0	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0	0
학회	학회이사회비	210,000	11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0	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0
	학술지심사비	280,000	70,000		학술지인쇄비	0	0
	학술지게재료	0	2,507,500		학술지발송비	0	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0
	학회기타수입	0	0		학회조교비	0	0
	소계	490,000	2,687,500		소계	0	0
전월 미수금	전월 CMS 입금	832,995	884,79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884,790	887,235
	전월 이니시스입금	175,248	0		이달이니시스미수금	0	27,500
	소계	1,008,243	884,790		소계	884,790	914,735
당월 수입액		14,889,123	17,354,593	당월 지출액		11,441,735	17,314,875
전월 이월액		17,178,080	20,625,468	차월 이월액		20,625,468	20,665,186

* CMS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0년 2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웅,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유충열, 유화원,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희동, 최수아,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김지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백은애, 이경우, 이운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고현경, 권경호,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노오,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성길, 김성규, 김성진, 김성찬, 김성호, 김세영, 김세중, 김수빈, 김승진, 김신정,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호, 김영욱, 김용석,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정준, 김정호, 김중원, 김중일,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해정, 김해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수진,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성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근아,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호형,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렬,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환,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지상, 유해무,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지혜,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상실,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준은, 이지연, 이진희, 이혜리, 이행로,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재광, 임지연,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병국, 전성규, 정경미,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자, 정용수, 정은경, 정이래,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무,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안,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화, 홍대학,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2만 강용란, 기민석, 김기현, 김민경, 김용식, 김은정, 김정욱, 김정호,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윤재림, 이건, 이기서, 이창우,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강진구, 김경민, 김방룡, 김태진, 문석운,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오익석,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4만 김인수, 우병훈,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심, 서진희, 손창민,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이형직, 정은애, 한윤식, 현은자, 6만 김동원, 석종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도서관, 장로회신학대학교도서관, 전성호, 7만 박문식, 최태연, 10만 손봉호, 신국원, 윤완철,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한정화, 12만 김중호, 서나영, 조애래, 최홍영, 황인태, 15만 강상우, 30만 홍숙희, 60만 유재복,

계 8,164,000원

기관후원

5만 개독교회, 고안제일교회, 새언약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마포중앙교회, 서로서랑교회 10만 강남교회, 계산제일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서울영등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흰돌교회 20만 디세움교회, 바울교회, 삼일교회, 예수항남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쉼이상네트웍스

계 4,600,000원

* 지난 2020년 1월 기관후원 명단에 '새언약교회'가 누락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전체 12,764,000원

회원후원

(2020년 3월)

3천 김성권, 3천5백 광도명, 김봉현, 김새별, 김새별, 김성욱, 김성호, 김영주, 김정원, 김형근, 김희원, 박원근, 생명의강, 손영일, 윤정, 이지연, 장재수, 장현정, 전은경, 조성진,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하태실, 5천 강대용, 공승건,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용, 김기현, 김대용, 김상욱, 김성찬, 김승택, 김영웅, 김정명, 김정식, 김태영, 김해창, 노승욱, 박광재, 박승룡, 박천규, 백상현, 범경철, 손영경, 송시섭, 유충열,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인, 이인수, 이종혁, 이항숙, 임소연, 임형준, 장현일, 전광학, 정진우, 조은아, 최광수, 최희동, 최수아,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5백 강찬진, 김지현, 박상균, 박성태, 방선기, 이경우, 이운택,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가용길, 강연정, 강은정, 고길현, 고선욱, 고세일, 고용재, 고현경, 권경호, 김원평, 김경호, 김경화,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남진, 김노오, 김도형, 김동원, 김막미, 김민성, 김민성, 김병국, 김병재, 김병철, 김보경,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성길, 김성규, 김성진, 김성찬, 김성호, 김세영, 김세중, 김수빈, 김승진, 김아람, 김아론, 김영규, 김영호, 김영욱, 김용석, 김유니스, 김은덕, 김은태, 김재완, 김재정, 김정모, 김정일, 김중원, 김중호, 김중원, 김중일,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진희,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해정, 김해정, 김홍섭, 김효숙, 남선우, 노순석, 라영환, 류수진, 류은정, 류지호, 류진호, 류현모, 모성근, 모아론, 문제환, 박계호, 박근아, 박동현, 박복애,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영주, 박원근, 박은주, 박주현, 박준모, 박지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성진,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변우진, 부천평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영규, 손진영, 손하은, 손현탁, 송아영, 송중철, 송철호, 송현미, 신경규, 신상형, 신성만, 신진호,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재훈, 안병렬, 안석, 안성희,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유건호, 유기남, 유동준, 유상원, 유상환, 유승민, 유영준, 유은희, 유재은, 유지황, 유지상, 유해무, 유화원,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지혜,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연, 이경직, 이길형,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문원, 이병수, 이상수, 이상순, 이상환, 이선복, 이상근, 이상미,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언구, 이연경, 이연희, 이영미,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윤희, 이정규, 이정기, 이정길,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준은, 이지연, 이진희, 이혜리, 이행로, 이환일,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장경근,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병국, 전성규, 전향화, 정경미, 정경식, 정다은, 정동관, 정봉현, 정선경, 정성자, 정용수, 정은경, 정이래, 정재현, 정정숙, 정현구, 정현주,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미연, 조승희,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창현, 조창희, 조현용, 조현지, 조혜경,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일, 채희석, 최삼열, 최성두, 최성호, 최영무, 최영, 최은정, 최종민, 최한민, 최현식, 최혜경, 추진연,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혜실, 한화진, 한희안, 허연, 허진영, 허현, 홍구화, 홍대학, 홍요섭, 홍정석, 홍종인, 황기철, 황도용, 황상준, 황성연, 황세환,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숙, 황혜원, 1만5천 김선화, 박정호, 정상섭, 1만7천5백 이찬수, 2만 David Han, 강용란, 강혜경, 김기현, 김남중, 김수진,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정호, 김진호, 김현숙, 박기모, 박홍식, 배성민, 백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창우, 정동섭, 정훈, 채기현, 허정도, 황혜정, 3만 김경민, 김동원, 김방룡, 김근진, 김태진, 문석운,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배덕만,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혜경, 이근호, 이은실, 임희옥, 정민, 최동진, 최용준, 추태화, 황영철, 황정진, 4만 심은희, 우병훈, 4만2천 조득정, 5만 김중우, 김택호, 박정심, 서진희,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이형직, 정은애, 한윤식, 현은자, 6만 고려신학대학원도서관, 김경희, 석종준, 침례신학대학교도서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도서관, 7만 박문식, 최태연, 8만 김성욱,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이원삼, 장수영, 장점연, 최현일, 한정화, 12만 김기홍, 예광복스, 14만 김세광, 20만 손점영, 100만 김신화

계 8,441,000원

기관후원

5만 개독교회, 고안제일교회, 새언약교회, 다운공동체교회, 10만 강남교회, 남서울메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남교회, 성덕교회, 예심교회, 종교교회, 종암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20만 금성교회, 바울교회, 흰돌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40만 삼일교회 200만 쉼이상네트웍스

10만원 디세움교회, 예수항남교회(4월입금)

계 4,400,000원

전체 12,841,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고신대 석좌교수, 이사장
편집장	신국원	총신대 명예교수, 이사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유준	서울 은진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겸임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문준호	(주)렘퍼스 이사,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前 수원중앙기독교초등학교 교장,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정회원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겐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사무국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정회원
	윤현준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사무국장, 변호사,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이상민	서울국제고 교사,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정회원
	최현일	삼병원 의사, 연세대 Ph.D, 감사
	추태화	안양대 교수,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 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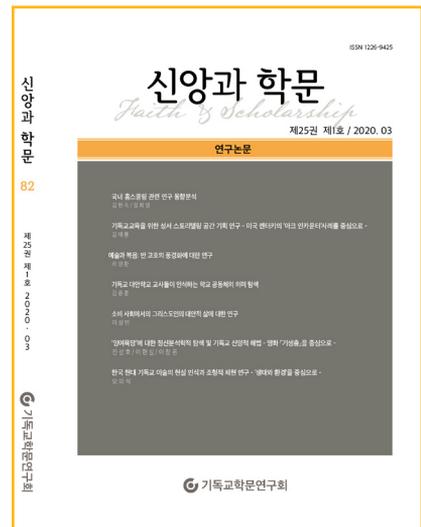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논문투고안내

-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신학과 학제간의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50일 전입니다.
- ◆ 2020년 3월 1일 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 **상세안내**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www.worldview.or.kr) '학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 **일반 문의** : gihakyun@daum.net (사무국, 학회)
- **신앙과 학문 문의** : faithscholar@naver.com (투고, 심사) **02-3272-4967**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